2024. 9.17

추석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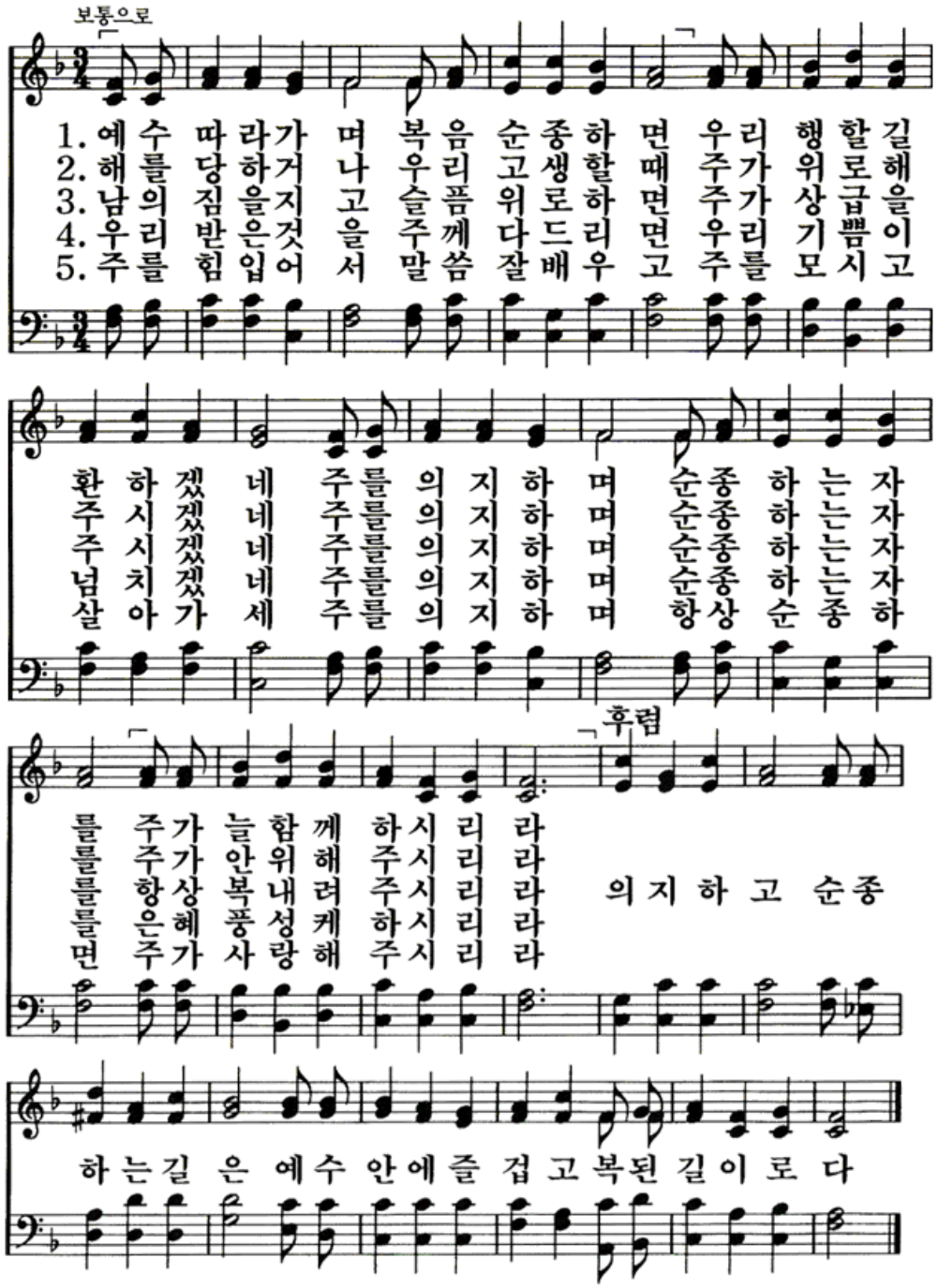
더온누리교회
THEONNURI PRESBYTERIAN CHURCH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84-9
063-211-1324 http://www.theonnuri.org

묵 도 ---------- **다 같 이**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 송 ---------- **449장 (예수 따라가며)** ---------- **다 같 이**



다함께 드리는 기도 ----------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추석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모였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주세요. '믿음이 이기네'라는 고백이 온 가족의 찬양되도록 인도해주세요.

금년 남은 한 해도, '더 예수님처럼'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도록 함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 씀 ---------- 열왕기하 5장 11~14절 ---------- 다 같 이

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다시, 순종의 삶으로"

아람의 나아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심각한 피부병)에 걸렸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으로 있던 북이스라엘의 소녀가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마디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나아만 장군은 그의 부하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인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을 통해 **"요단강에 가서 일곱번을 씻으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말만 전달했을 뿐이었지요.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 했지만, 종들의 만류에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마침내 나아만은 내려가서 요단 강물에 몸을 일곱 번 씻었고, 그의 살은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아만의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I 나아만은 막대한 예물을 갖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저 일곱 번을 씻으라는 말에 **'내 생각에는'(11절)**이라고 말하며, 환대도 없고 화려한 의식도 없었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종들은 다음과 같이 만류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13절, 새번역)**

엄청난 양의 예물들을 준비하는 것은 쉬웠지만, 자신의 방식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이처럼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말씀 순종에 방해가 되는 내 생각은 무엇이 있을까요? 욕심과 굳어진 관습은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함께 돌아봅니다.

둘째,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I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 일곱 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듣고 분노했던 엘리사의 선포,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10절)** 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요단강에 일곱 번까지 담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만이 만약, 여섯 번째까지만 물에 잠그고 화가 나서 나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나아만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나아만은 그저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참된 신은 하나님 뿐이심을 고백합니다.(15절) 순종의 삶은 또 다른 내 욕망을 얻어내는 전략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며, 풍성한 삶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남은 한 해, 말씀 안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과 은혜 나눔 ---------- **다 같 이**

가족 구성원 서로를 마음 다해 축복하고,
말씀 안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마 침 ---------- **주기도문** ---------- **다 같 이**